

# 전남도 올 10대 고품질 브랜드쌀 선정

대상 대숲맑은담양쌀 차지  
최우수상 강진 프리미엄호평  
품질 상향... 명품화 노력 결실



공정성을 높이고 소비자 기호에 적합한 브랜드를 선정하기 위해 시중 판매처에서 2회에 걸쳐 시료를 무작위로 구입해 품종 혼입률과 중금속 및 잔류농약 검사를 했다. 한국식품연구원 전문가를

통해 맛, 냄새, 조직감 등 식미검사를 했다. 이번 10대 브랜드 평가 결과 전남도에서 육성하는 새창무 품종에서 3개가 포함됐다. 지난해에 이어 대상을 받은 대숲맑은담양쌀은 품종 혼입률, 외관품질, 식미평가에서 고루 좋은 평가를 받았다. 특히 전반적으로 품질이 상향 평준화돼 쌀 명품화를 위해 그동안 전남도가 들인 노력이 결실을 얻은 것으로 분석됐다. 소영호 전남도 농축산식품국장은 "전남 10대 브랜드 쌀 품질이 우수하다는 것은 이미 객관적 자료를 통해 입증됐다"며 "품질 경쟁력과 홍보를 강화해 소비시장에서 경기미와 대등한 가격을 받도록 하고, 대량 수요처 등 온·오프라인을 통한 판매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전남도는 지난 4월 편의점 CU 운영회사인 BGF리테일과 업무협약을 해 연말까지 340억원 상당 1만2800t의 새창무 쌀을 김밥용으로 공급하기로 했다. 최근 CU에서 전남 새창무 쌀을 원료로 한 신제품 김밥 3종이 출시돼 폭발적 인기를 끌고 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 전남도 도민명예기자 임원진 간담회



전남도는 지난 20일 도청 정약용실에서 '내 삶이 바뀌는 전남 행복시대'를 널리 알리고 있는 도민명예기자 임원진과 간담회를 열고, 이들의 활동을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전남도 제11기 도민명예기자(지역회장 박정숙·항우회장 채규진)는 지난해 8월 위촉됐다. 이들은 그동안 도정 소식지에 글을 쓰는 것을 비롯해 바자회와 워크숍, 봉사활동 등을 펼치며 도정 홍보와 함께 지역 여론을 도에 알리는데 기여했다. 지난해엔 코로나19 확산으로 대면 행사를 추진하지 못했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김영록 전남도지사를 비롯 도민명예기자 임원진 12명이 참석, 주요 활동 내용을 공유하고 다양한 의견을 들어 그간의 아쉬움을 달랬다. 특히 지난 2년 동안 제10기 도민명예기자 회장으로 도정 시책을 홍보해 도정 발전에 힘쓴 전미경 전 회장에게 공로패를 수여했다. 총 129명으로 꾸려진 전남도 도민명예기자단은 매년 농번기 부족한 농촌의 일손을 거둬주고 있다. 또 각자 기증한 물품으로 바자회를 열어 마련한 판매수익금을 이웃에게 전달하는 등 지역에 온정을 불어넣고 있다. 지난 2019년 강원도 산불 이재민을 위해 성금을 보내기도 했다. <전남도 제공>

## 전남테크노파크, 42개사와 에너지산업 기업협의회

협업 등 지원사업 설명회



전남테크노파크(원장 유동국)는 지난 20일 주에서 전남 에너지산업 기업협의회 42개사를 대상으로 전남 에너지산업 기업협의회 정기총회와 지원사업 설명회를 개최했다. <사진> 전남 에너지산업 기업협의회는 에너지기업 상호 교류 협력 증진과 전남의 에너지산업 발전 및 지역 경제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지난 2020년 12월 32개사가 모여 창립됐다. 현재까지 42개 회원사로 확대했으며, 2022년까지 회원기업

100개사를 발굴·구성할 계획이다. 정기총회에서는 에너지산업업 포럼 등을 추진하여 산·학·연·관 간 네트워크와 기업-기업 간 협업시스템을 강화하고, 분과별 상임위원회(신재생에너지, 수소

연료전지&ESS, 전력기재, 에너지물류선)를 통해 기업의 연구기획 및 실증 역량 강화 및 정부 지원사업 관련 정보제공 등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을 논의했다. <전남테크노파크 제공>

## 전남산림자원연구소 칩덩굴로 보행매트 만든다

벤치기업부 연구사업 선정 6억 확보

전남도산림자원연구소는 산림 생태계에 피해를 주는 칩덩굴로 보행매트를 개발하는 사업이 중소벤처기업부 신제품개발사업 R&D 연구사업에 선정돼 6억원의 국비를 확보했다. 현재 사용하는 보행매트(일명 야자매트)는 코코넛 껍질 섬유를 이용한 것으로 베트남 등 해외에서 전량 수입하고 있다. 수입액은 연간 500억원에 이른다. 칩덩굴 활용 보행매트 개발 연구는 산림과 가로수에 피해를 주는 칩덩굴을 활용함으로써 산림 보호는 물론, 칩덩굴 제거, 버려지는 자원 재활용, 제거 현장에 방치돼 부패하면서 발생하는 이산화탄소 저감 및 원료 수입대체 효과 등 다양한 이점이 있다. 전남도산림자원연구소는 지난해 칩덩굴을 이용해 수건을 개발, 소비자로부터 호응을 얻은 바 있다. 올해는 커튼, 이불 등 천연섬유 소재 연구도 활발히 하고 있다. 또 효과적인 칩덩굴 제거를 위해 인력을 활용한 물리적 제거와 농약 살포에 따른 화학적 처리 및 잔류농약 검사를 포함한 최적 제거 방법과 단가 산출 등 시책 반영을 위한 다양한 연구도 추진하고 있다. 전남에는 3만3000ha의 칩덩굴이 분포하고 있다. 올 한 해 121억원을 들여 1만2000ha의 칩덩굴 제거사업을 추진한다. /윤현석 기자 chadol@

## 동물복지형 녹색축산농장 21농가 추가

전남도, 지정농장 309농가로 늘어

전남도가 올해 '동물복지형 녹색축산농장' 21농가를 신규 지정했다. 이로써 지정 농장은 총 309농가로 늘었다. 신규 지정농가는 한우 17호, 젓소 3호, 염소 1호 등 21개 농가다. 308개 농가 중 한우가 170호로 가장 많고, 닭(68호), 돼지(21호), 오리(20호), 염소(18호), 젓소(12호) 등이 그 뒤를 이었다. 동물복지형 녹색축산농장 지정은 가축 생태에 적합한 사육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소비자에게 안전한 축산물을 생산·공급하기 위해 2012년부터 추진한 사업이다. 녹색축산농장 지정은 농가에서 해당 사·군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사·군 검토를 거쳐 도에서 접수, 서면심사와 현장심사를 통해 적합한 경우 지정서

를 교부한다. 지정 대상은 유기 또는 무항생제 인증, 안전관리인증(HACCP), 깨끗한 축산농장 지정, 정부 인증인 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 중 1가지 이상 인증(지정)을 받은 농가다. 가축 사육밀도, 축사 위생관리 상태, 분뇨 처리 현황 등 22개 항목을 도와 사·군 담당자, 외부 심사위원으로 구성된 심사반이 심사하며, 심사 결과 총 200점 중 160점 이상을 얻은 농가를 녹색축산농장으로 지정한다. 녹색축산농장 지정 농가에는 유지·관리 등을 위한 인센티브로 농가당 운영자금 200만원을 매년 지원한다. 축사시설 현대화사업 및 녹색축산기금 융자 등 각종 축산정책 사업의 우선 지원 자격도 주어진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 전남사회적경제소핑몰 '녹색나눔' 6월까지 권역별 입점 기업 교육

전남도와 전남사회적경제통합지원센터가 전남 사회적경제소핑몰인 '녹색 나눔(www.greenanum.co.kr)'의 활성화를 위해 입점 기업 교육을 실시한다. 전남지역 220여 기종 입점 기업과 새로 입점을 신청한 기업이 교육 대상으로, 이들 기업에 대해 제품 홍보, 배송 등 고객관리 교육의 역량을 향상시키는 것을 교육 취지로 하고 있다. 목포 등 서부권 6개 사·군은 이미 교육을 마쳤으며, 6월 말까지 권역별로 총 8회 개최한다. 추가 참여를 바라는 사회적경제기업은 전남사회적경제통합지원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교육 내용은 녹색나눔 운영 현황과 최근 온라인 소비 트렌드 추세, 입점 방법·정산 절차, 질의응답 등으로 구성됐으며, 총 2시간 동안 진행된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 전남도청 구내식당, 국산김치 자율표시 현판식

9월까지 5000개소까지 확대

전남도는 전국 첫 민간 합동 '국산김치 사용인증 자율표시제'를 추진한데 이어 도청 구내식당을 국내 공공기관 1호 '국산김치 사용인증 자율표시제' 지정 식당으로 지정해 지난 24일 현판식을 가졌다. 이날 현판식에는 김영록 전남지사와 이하연 국산김치자율표시위원장, 송기현 한국외식업중앙회 전남지회장, 김애란 한국여성소비자연합전남지회장, 박정희 전남김치생산협회장 등이 참석했다. 전남도는 이번 현판식을 시작으로 공공기관, 음식점, 병원, 학교 등을 대상으로 오는 9월까지 '국산김치 사용인증 자율표시제' 인증업소를 5000개소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국산김치 사용인증 자율표시제는 100% 국산 재료로 만든 김치를 생산업체로부터 공급받거나, 100% 국산 재료를 이용해 직접 만들어 사용하는 음식점, 공공기관 등을 국산김치자율표시위원회가 인증하는 제도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귀할수록 전문 브랜드 비타민하우스

**45** 북위 45도 이상  
흑한에서

**15** 15년을 자란  
차가버섯을 엄선

**12** 12배 고농축으로  
영양을 꽉 채운

**시베리안  
차가버섯**

Vitamin House  
구입문의 1588-8529

비타민하우스 전속모델 서경석